

2/9(수) 스가랴 묵상 10

스가랴 6:1-8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마지막 환상입니다. 몇차례 언급한대로 스가랴가 본 여덟 개의 환상은 그 내용이 수미상관법(Inclusio)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환상도 첫번째 환상과 내용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와 여덟번째 환상

스가랴가 본 첫번째 환상과 여덟 번째 환상은 둘 다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1장에서 등장한 네 마리의 말을 탄 자들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었습니다(스 1:10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스 1:17,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스 1장의 네 마리의 말을 탄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두루 다니며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아직 밤 중이었습니다(스 1:8, **“내가 밤에 보니..”**). 다음으로 스가랴 6장에서 비슷한 네 마리의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1장과 다른 점은 여기서는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하지 않고 여러 색깔의 말들만 설명합니다. 이 말들의 정체에 대해서 스가랴는 질문합니다(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 때 천사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즉, 네 말의 정체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NIV 성경에서는 네 말을 가리켜 ‘Four spirits of heaven’으로 번역하고, 또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네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6-7절은 각각의 말들이 흩어져서 주의 일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6-7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룡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기 네 말들 중에서 두 말들이 북쪽으로 간 것은 스가랴가 본 환상의 주된 관심은 북쪽의 일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가고 흰 말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북쪽’은 이동하기 쉬운 이스라엘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과거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했던 지역이고 포로들이 귀환한 루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들이 북쪽으로 나간 것은 바벨론의 심판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에 천사가 외치기 시작합니다(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쉬게 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머문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북쪽 가운데 머무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포로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본국으로 오기를 꺼려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 올 길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차에 이어 에스라를 통한 2차 그리고 느헤미아를 통한 3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 다른 두 말들 중에 어룡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갑니다. 남쪽은 지리적으로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애굽을 추정하게 합니다. 끝으로 7절의 건장한 말이 “땅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이 말들이 하는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방 나라의 심판은 곧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환상의 배경은 1절의 말씀대로 산이 검은 것이 아니라 구리산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여명이 밝아오면서 스가라가 본 환상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에 두 천사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행 1:10-11,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 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십자가와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셔서 사탄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의 때에 ‘건장한 말처럼’ 다시 예수님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오늘 본문의 묵상처럼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부활과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무엇을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또 대단한 업적을 많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믿고 따르는 자는 반석 위에 쌓은 인생으로 그의 이름은 생명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단 12:1하-3절, “그 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우크라이나 땅을 위한 기도:

1 월 11 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남미 사람들 대부분의 종교인 가톨릭 신앙을 버리고 개신교 신앙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카톨릭의 쇠퇴의 원인은 가톨릭의 특권을 약화해 온 정치체제 변화, 지구촌의 세속화 추세, 대중과 종교의 관계, 다른 기독교 교파들의 공격적 선교 등이 거론되면서 특히 가톨릭에 대한 중남미 빈곤층의 인식과 개신교의 보수적인 분파인 오순절 교파의 득세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오순절 교회는 빈곤층에 종교적 영적 지원뿐만 아니라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많은 중남미의 많은 가톨릭 신자가 오순절 교회로 전향하고 있다고 한다. 중남미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에티오피아 박종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